

# 어머니 공성을 알아가는 길

짱까 룰빼 도제 지음 (1717-1786)

에마호!

심오한 연기법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 주시는  
은혜로운 스승께서는  
언제나 제 마음 속에 머물러 주소서!

불현듯 떠오르는 대로 적어 봅니다.

오랜 세월 어머니를 잃고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닌 어린 아들이  
나이든 어머니가 항상 제 곁에 계셨음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형이 조용히 알려주었으나  
안타깝게도 믿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대상과 인식은 어머니의 미소,  
생사가 반복되는 이 윤회는 어머니의 거짓말,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는 어머니가 나를 속였고  
형인 연기만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오로지 나이든 어머니의 온정만이  
(윤회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대상과 인식이 이러하니  
삼세의 부처님조차 나를 구제하지 못하나,  
다양한 표정을 짓지만 한결 같은 어머니 덕분에  
비로소 벗어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형상도 없고, 형용할 수 없는 어머니  
거짓된 모습으로 여기저기 의탁해 계셨으니  
이것만으로도 큰 가르침을 얻습니다.

아버지를 찾아 헤맸으나 찾지 못했는데  
어머니를 찾으니  
그 곁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결국 은혜로운 부모님께서 저를 살렸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어머니 얼굴이  
연기법이라는 형님의 거울에 비치니  
비록 잡히지는 않으나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보고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린 저는 작은 단서도 얻지 못했습니다.

용수 보살과 월칭 논사가 바람에 실어 보낸 편지를  
문수보살의 새가 갖다 주니  
오랜 세월 힘들이지 않고 긴긴 세월  
어머니가 제 곁에 함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박학다식한 학자들은  
실재, 실체라는 단어에 빠져  
눈앞에 보이는 것은 체쳐 두고  
빨 달린 헛것을 찾고 있습니다.

분별을 여윈 어머니 얼굴에는  
무엇도 고정된 채로 존재하지 않고  
비논리적인 잡설은  
나이든 어머니 등을 떠뒹니다.

만물은 존재하지만  
이분법으로 존재의 유무를 따질 수 없고,  
서로를 아끼는 부모님은 떨어지질 않고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일체유부, 경량부, 유식파로 불리는 동방의 학자들이  
어머니를 “코끼리”, “하얀 입자”  
“물질”, “호랑이의 무늬”, “주체”  
“미친 원숭이”, “둘로 쪼개지지 않는 것”  
“주체할 수 없는 꿈”이라고 이름하지만  
여전히 나이 든 어머니를 찾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싸까, 닝마, 깔마, 독빠 까규의 많은 학자들이  
“본디 청정함”, “안 바가 없음”, “얹”,  
“본연의 자리인 보현 보살의 본성”,  
“조작됨 없는 본연의 자리인 마하무드라”,  
“존재하지도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 등으로  
다양하게 설명했으나 제대로 조준하지 못했으니  
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외경을 부정하지 않으니  
유부학과들은 낙담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스스로 인식하는 것은 없지만 대상과 주체가 있으니  
모든 유식학과는 기뻐하십시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지만 의존해서 발생하니  
동방 학자들은 기뻐하십시오.

청정과 공성은 모순되지 않으니 한 맛이라는 사실에  
법을 배우는 자들은 의문을 조금도 품지 마십시오.  
(마음은) 본디 청정하나 선악도 있다고 주장하는  
유식파들은 청정이라는 단어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부자연스러운 수습으로도 본성은 드러날 것이니  
나이 든 수행자들이여, 애쓰지 말라.  
유무의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논쟁에 빠진 고지식한 자들이여, 초조해 마십시오.

그러나 배움이 부족한 이들이  
세간의 용어가 사용되는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대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  
상처가 되었다면 미안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스승이라는 선한 말에 올라타  
성실함과 공경심과 함께 달리니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찾을 필요 없습니다, 찾는 것은 자신입니다.  
사실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거짓입니다.  
거짓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진실입니다.  
유무를 여윈 중도의 자리에서만 설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정작 직접 뵈 적은 없지만  
이름을 들은 것만으로도 헤어진 부모와 만난 것 같고  
바로 곁에 계신 것 같습니다.

용수 보살과 제자들의 은혜가 참으로 큼니다.  
쫓카파 룩상 닥빠 스님의 은혜가 참으로 큼니다.  
스승의 은혜가 참으로 큼니다.  
은혜에 보답하고자 어머니께 공양을 올립니다.

발생함이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노모와  
알아차림의 어린 아들이 함께  
영원히 안락한 이 법으로  
나이든 어머니와 같은 모든 중생을 안내하겠습니다.

저 룰베 도제는  
이 자리에서 제 기쁨을  
홍겨운 춤으로  
삼보에 공양을 올립니다.

위 내용은 쟁가 룰베 도제가 중관을 배움에 관심이 많은 이들을 위해 오대산에서 말했다.  
비구 계택 남카가 시의 형태로 옮겨 적어 세상에 전했다. 제목은 <메아리>이며  
공성(어머니)을 알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